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한 Holland 이론의 문화간 타당화 연구

황 매 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진로 선택은 진로 흥미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 진로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조력하기 위해 내담자의 진로 흥미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Holland 6가지 흥미 유형 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판 Holland 자기탐색검사이인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Holland 진로 선택이론이 진로 상담 실제에서 얼마나 타당하며, 그 적용에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그 원점수의 분포와 타당성, Holland 이론의 주요개념인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주목할만한 연구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흥미는 상대적으로 낮은 변별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와의 일치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학과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어, 변별도 수준이 높거나 일치도 수준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의 학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진로상담 실제와 후속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선택, Holland 이론, 흥미, 흥미 유형,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

[†] 교신저자 : 황 매 향,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7
전화 : 041-560-1412 E-mail : maehyang@kutac.kr

Holland의 진로선택이론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진로상담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Gati(1991)는 지난 40년간 미국 진로상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론으로 Holland 이론을 꼽고 있다. 또한 Holland이론과 Holland의 자기탐색검사(Self Directed Search, SDS)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핵심 개념들이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무엇보다 Holland 자기탐색검사의 문화적 타당화에 대한 검증과 이해는 검사의 윤리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Holland 이론의 기본 가정들에 대한 문화적 타당화 연구가 1950년부터 1980년에 걸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태리,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구아니아에서 있었고, 직업흥미의 유형화와 검사도구는 1985년에서 1995년에 걸쳐 벨기에, 중국, 일본, 그리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독일, 핀란드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진로상담 실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Holland, 1997). 최근 여러 나라에서 흥미검사의 문화적 타당성 검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Leong, Austin, Sekaran & Komarraju, 1998), 홍콩(Farh, Leong & Law, 1998), 멕시코(Fouad & Dancer, 1992), 중국(Yu & Alvi, 1996)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1996년 한국가이던스에서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Holland의 자기탐색검사에 근간을 두고 한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안창규, 1996a; 1996b). 그 이후 대학 상담실 및 각급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노동부에서 Holland의 직업선호검사

(VPI,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Holland, 1977)를 근간으로 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각각 개발하였다(이체희,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Holland 자기탐색검사의 표준화 과정과 Holland 이론에 입각한 직업선호도 검사의 개발 과정에서 각 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으나, 심리측정학적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Holland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화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Holland 자기탐색검사 결과 해석 과정 및 진로상담 적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Holland 이론의 주요개념인 일관성, 변별성,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에 대한 검증이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개념들을 분석하고, 그 임상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 진로탐색검사의 한국판인 한국가이던스의 Holland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안창규, 1996b)의 원점수로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 계수를 각각 산출하고, 그 분포를 미국 자기탐색검사의 계수들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위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진로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는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의 활용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 계수와 학과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olland 이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진로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olland의 진로선택이론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는 Holland 진로선택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Holland(1979, 1997)는 사람들의 특성을 현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개인은 어느 한 유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유형의 성격적 특질과 행동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Holland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Holland, 1997).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적, 관습적”, 여섯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머릿글자 RIASEC는 여섯 가지 유형의 이름과 순서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기업적, 관습적”, 여섯 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환경에는 그 성격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직업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선택, 직업변경, 직업적 성취감 등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Holland(1997)는 4가지의 기본 가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요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

① 일관성(Consistency)

이 개념은 환경유형 뿐만 아니라 성격유형에도 적용된다. 유형들의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술적 유형과 사회적 유형은 탐구적 유형과 기업적 유형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육각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성격의 일관성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일관도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Holland 코드 첫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높은 일관도는 첫 두 문자

가 육각형에 인접할 때 나타난다(예; RI 또는 SE). 중간정도의 일관도는 육각형에서 다른 문자가 개인코드의 첫 두 문자 사이에 있을 때 나타난다(예; RA 또는 SC). 낮은 일관도는 코드의 첫 두 개 문자가 육각형에서 이들 둘 사이에 낀 문자들에 의해 나누어질 때 나타난다(예; RS 또는 AC).

② 변별성(Differentiation)

어떤 사람들(또는 환경)은 아주 단순하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유형에는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에는 별로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또는 환경) 여러 유형에 똑같은 유사성을 나타낸다. 모든 유형에 똑같은 유사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특징이 없거나 잘 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가를 변별도로 나타낼 수 있다. 변별도는 제1차 코드와 제2차 코드의 차이값 또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값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변별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정체성(Identity)

개인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란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견고한 청사진을 말한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란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목표·일·보상의 통합이라고 규정된다.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업흥미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진로정체감검사가 개인에 대한 이러한 구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컨대 이 검사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과 반대되는 직업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④ 일치성(Congruence)

다른 유형은 다른 환경을 원한다. 사람은 자신

의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환경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예술적인 사람이 관습적인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는 일치성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중요한 보상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예컨대 사회적 유형은 사회적 환경이 제공되는 보상을 좋아한다. 육각형은 개인의 유형과 환경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완벽한 조합은 현실적 환경에서 현실적인 성격유형을 지닌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선의 적합은 환경유형에 인접한 흥미유형이다. 즉 탐구적 환경에서 일을 하는 현실적 유형의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과 개인의 가장 좋지 않은 일치의 정도는 육각형에서 유형들이 반대지점에 있을 때 나타난다.

⑤ 계측성(Calculus)

Holland에 의하면, “유형들(환경) 내 또는 유형들 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델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데,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환경)들 간의 거리는 그것들 사이의 이론적인 관계에 반비례한다.” 육각형은 개인(환경) 간 또는 개인 내에 있는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도형이다. 즉, 그것은 이론의 본질적 관계를 설명해준다.

Holland 이론의 문화간 타당화 연구

Holland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미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Weinrach와 Srebalus(1990)는 198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타당화 연구(예, Gade, Fuqua, & Hurlburt, 1988; Greenlee, Damarin, & Walsh, 1988; Sheffey, Bingham, & Walsh, 1986; Walsh, Hildebrand, Ward,

& Matthews, 1983; Walsh, Woods, & Ward, 1986)를 정리하면서, Holland 이론은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의 진로관련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Hansen(1987)은 미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타당성과 더불어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Holland 이론 및 Holland 검사의 문화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Hansen은 검사의 번역 및 타당화 과정, 민족 집단간 타당화 연구, 흥미구조의 문화적 타당화에 관한 연구 등을 주제별로 분석하면서, 직업흥미의 수준은 다양할지라도 Holland가 가정하고 있는 흥미의 육각형 구조는 거의 유사하며 따라서 다문화적 활용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Ryan, Tracey와 Rounds(1996)는 Holland 검사도구의 문화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 문화집단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yan 등은 아프리카계 고등학생들과 백인 고등학생들의 직업흥미 구조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흥미구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집단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직업흥미 구조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Haverkamp, Collins와 Hansen(1994)는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들의 직업흥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집단에서는 Holland 육각형 모형과 RIASEC 순서가 완전히 지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문화적 타당성 검증에 대한 보다 활발한 후속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Holland 자기탐색검사의 타당화 연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Fouad와 Dancer(1992)는 멕시코와 미국의 공대 대학생 및 공학자에게 서반아어 자기탐색검사(SDS)와 영어 자기탐색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Holland 자기탐색검사의 문화간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RIASEC 여섯 가지 유형의 유사성과 근접성을 계산하여 멕시코인과 미국인의 직업적 흥미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혀 문화간 타당성을 지지했다. 단, RIASEC의 각 거리를 분석한 결과 정육각형 가설은 두 집단에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

중국판 자기탐색검사(SDS)를 중국 중·고등학생 409명에게 실시한 Yu와 Alvi(1996)의 연구에서는 Holland의 육각형 모형이 지지되었다. Yu와 Alvi는 특히 Holland의 5가지 주요개념 가운데 일치성과 계층성을 검증하였다. 즉, 희망 전공으로 공대를 선택한 학생들의 47.6%와 컴퓨터공학 선택한 학생들의 53.5%가 탐구형(I)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대 선택한 63.0%의 학생이 예술형(A), 사대를 선택한 53.2%가 사회형(S), 경영대를 선택한 57.5%의 학생이 기업형(E), 회계학을 선택한 40.2%의 학생이 관습형(C)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Holland의 일치성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RIASEC 각각의 상관계수로 살펴본 유형간 관련성은 Holland 육각형 모형을 지지하였다.

Farh와 Leong(1998)은 홍콩에서 대학 신입생 1813명을 대상으로 Holland 모형의 문화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arh와 Leong은 Holland 모형의 외적, 내적 타당도가 모두 지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RIASEC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을 검증하였고,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과 RIASEC 각 척도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현실형 직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현실형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Holland 모형의 외적 타당도도 확인되었다. 전공과 학생들의 코드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과학 전공생들은 탐구형, 공대 학생들은 현실형, 경영대 학생들은 기업형, 관습형, 사회형에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Farh와 Leong의 연구에서

는 중국적 전통 가치를 강하게 가진 학생들의 경우 Holland 모형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 타당성 검증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인도에서 17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Leong, Austin, Sekaren과 Komarraju(1998)의 연구에서도 Holland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직업흥미 구조의 유사성만 지지되었다.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 계수와 직업만족도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어느 계수도 직업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개인과 환경의 흥미 일치도, 직업적 흥미의 변별도 및 일관도가 직업만족도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Holland 검사의 외적 타당도는 확보되지 않았고 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총 171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95명의 남학생(56%)과 76명의 여학생(44%)으로 남녀비율은 거의 같다.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 한 학기동안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신청한 학생들로, 1학년 46명, 2학년 47명, 3학년 47명, 4학년 48명, 대학원생 이상 7명이고, 이들 중 1명은 학년을 표시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Holland 직업흥미유형은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한국가이던스, 안창규 역, 1996b)로 측정하였다.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는 Holland(1985)의 자기탐색검사에 근간을 두고, 한국에서 표준화한 것이

다.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는 총 396문항으로 6개 척도(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각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검증결과에 따르면, 내적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89(관습형)에서 .94(예술형)의 범위이다.

타당화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안창규, 1995a; 1996b). 그리고 이러한 타당도 검증계수들은 Holland 등 (1994)의 자기탐색검사의 타당도 계수와 유사했다. 예를 들면, 성별 흥미코드의 분포에서, 남자의 경우 현실형이 가장 많고 관습형이 가장 적은데, 여자의 경우 사회형이 가장 많고 현실형이 가장 적다. 그리고 공대학생들 중에는 현실형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에는 사회형이 가장 많았다. 또한 Neo-성격검사와 MBTI 성격검사와의 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했는데,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는 6개 척도가 총변량의 68.4%를 설명하고, 현실형이 18.8%, 탐구형이 16.4%, 예술형이 12.8%, 사회형이 8.8%, 기업형이 6.6%, 관습형이 5.1%를 설명하고 있다. 6개 척도간 상호상관은 예술형과 관습형 사이 -.35에서 사회형과 기업형 사이 .44로 나타났다.

절차

Holland 이론의 주요 개념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관도는 육각형 모형을 사용하여 정의하였고, 육각형에서 서로 인접한 유형일수록 일관도가 높고, 반대쪽에 있는 유형끼리는 일관도가 가장 낮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기탐색검사 결과 예술형과 관습형이 가장 높은 두 코드로 나온 경우, 두 코드는 서로 반대쪽에 있으므로 가장 일관도가

낮은 코드라고 할 수 있다(Holland, 1985, p.4).

변별도는 가장 높은 코드의 원점수와 가장 낮은 코드의 원점수의 차이점수로 계산하였고, 최소 0에서 최대 48까지의 값이다(Holland, 1985, p.5). 또한 변별도를 알아보는 또다른 지표인 “평평한(flat)” 프로파일 지표도 사용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의 세코드의 차이가 0에서 8사이일 경우 평평한 프로파일로 정의하는 Holland 정의와,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5 이하인 것을 평평한 프로파일로 정의하는 Pusateri(1998)의 정의를 모두 사용하였다.

개인과 환경간의 일치도 계수는 Zener-Schnuelle 지수를 사용하였다. 현재 학과의 Holland 코드와 진로 및 적성검사 결과 나타난 Holland 코드가 3가지 모두 순서까지 일치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6점을 받는다. 학과 코드와 자신의 코드가 첫 두자리가 동일할 때는 5점, 순서에 상관없이 3개 코드가 서로 일치하면 4점, 전공 코드와 자신의 코드의 첫 한자리가 일치할 때 3점, 자신의 1차 코드와 2차 코드가 전공 코드 3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2점, 자신의 1차 코드가 전공 코드 3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1점, 자신의 1차 코드가 전공 코드 3개와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0점이 된다.(Holland, 1985, p.79).

이렇게 계산한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 계수의 분포를 살펴보고, 검사신청서에 기록한 자신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3가지 계수와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6가지 유형의 분포

6가지 Holland 코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탐구형이 가장 높게 났고, 성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코드는 탐구형($m=34.82$, $SD=11.55$)이고, 여학생에게 가장 높게 나타난 코드는 사회형($m=32.21$, $SD=11.21$)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남녀 대학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탐구형($m=26.38$, $SD=10.08$)에서, 여학생은 사회형($m=34.35$, $SD=6.96$)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Holland, 1985, p.6).

Holland 코드 중 3가지 상위코드의 분포를 표 2에 정리하였다. 1차 코드의 분포를 보면, 탐구

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현실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코드는 사회형, 탐구형, 기업형, 현실형/예술형, 관습형의 순으로, 3차 코드는 관습형, 사회형, 탐구형, 기업형, 예술형, 현실형의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Holland 1차 코드 분포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earson Chi-Square = 16.536 ($df=5$, $p=.005$))를 보였고, 그 분포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차 코드가 탐구형, 기업형, 사회형, 현실형/예술형, 관습형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예술형, 탐구형, 사회형, 관습형, 기업형, 현실형의 순으로 나

표 1. 6가지 유형의 분포

	남학생 (N=95)		여학생 (N=76)		전체 (N=17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실형	28.39	12.87	18.58	10.27	24.03	12.73
탐구형	34.82	11.55	30.53	11.55	32.91	11.71
예술형	26.49	13.07	29.68	13.01	27.91	13.10
사회형	28.95	10.75	32.21	11.21	30.40	11.04
기업형	29.43	12.59	26.39	11.68	28.08	12.26
관습형	26.83	10.76	25.41	10.35	26.20	10.57

표 2. 1,2,3차 코드의 분포

	1차 코드		2차 코드		3차 코드	
	N	%	N	%	N	%
현실형	14	8.2	22	12.9	18	10.5
탐구형	48	28.1	38	22.2	33	19.3
예술형	35	20.5	22	12.9	24	14.0
사회형	29	17.0	45	26.3	34	19.9
기업형	26	15.2	24	14.0	26	15.2
관습형	19	11.1	20	11.7	36	21.1

표 3. 1차 코드 분포의 성별 차이

	남학생 (N=95)		여학생 (N=76)	
	N	%	N	%
현실형	13	13.7	1	8.2
탐구형	28	29.5	20	28.1
예술형	13	13.7	22	20.5
사회형	14	14.7	17	18.1
기업형	17	17.9	7	14.0
관습형	10	10.5	9	11.1

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6가지 유형에 걸쳐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예술형, 탐구형, 사회형에 다수가 모여 있고 관습형, 기업형, 현실형에는 소수만이 분포하고 있어 분포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관도

학생들의 Holland 코드에 대해 일관도 지수를 각각 계산하고, 그 분포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관도가 매우 높은 코드를 가진 학생들은 약 50% 정도인데, 이 결과 역시 미국의 대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 대학생에게 자기탐색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들의 41%, 여학생들의 52%가 높은 일관도의 코

표 4. Holland 코드의 일관도 분포

	남학생 (N=95)		여학생 (N=76)		전체 (N=171)	
	N	%	N	%	N	%
낮음	15	15.8	6	7.9	21	12.3
중간	42	44.2	24	31.6	66	38.6
높음	38	40.0	46	60.5	84	49.1

표 5. 프로파일 변별도 - Holland 지표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남학생 (N=95)	28.64 (32.43)**	8.59 (7.02)	30.8
여학생 (N=76)	29.45 (33.99)	9.12 (6.30)	25.5

* 미국 기준에 따른 백분위
()** 미국 대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드를 나타냈다(Holland, 1985, p.67).

변별도

연구대상의 검사결과로 Holland 프로파일 변별도(1차 코드값과 6차 코드값의 차이값으로 정의)를 계산하고, 이를 미국 대학생들의 변별도 수준과도 비교해 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학생들의 변별도는 남학생의 평균이 28.64, 여학생의 평균이 29.45로, 남학생의 평균이 32.43, 여학생의 평균이 33.99(Holland, 1985, p.71)인 미국 대학생들에 보다 낮았다. 또한 미국 기준에 비교해 볼 때, 한국 남자 대학생의 평균은 백분위 30.8, 한국 여자 대학생의 평균은 백분위 25.5에 머물고 있어, 변별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별도의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 평평

도를 Pusateri(1998)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다. Pusateri는 최고 코드와 최저 코드의 차이가 25이하인 경우를 평평한 프로파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9.6%(연구대상 중 102명, 남학생 56명, 여학생 46명)가 평평한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Holland(1985)는 1,2,3차 코드 사이의 차이값이 8점 이하일 때를 평평한 프로파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한국대학생의 31.0%(연구대상 중 53명, 남학생 32명, 여학생 21명)이 평평한 프로파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

검사결과 나타난 Holland 코드와 현재 전공학과의 Holland 코드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Zener-Schnuelle 지수에 따라 한국대학생들의 전공일치도를 계산해 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학생들 중 1/3 만이 Zener-Schnuelle 지수 3이상으로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2/3 정도의 학생들이 자신과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한 미국대학생(Holland, 1985, p.79)의

표 6. Holland 코드와 전공학과의 일치도 Zener-Schnuelle 지수

Zener-Schnuelle 지수	N	%
0	27	15.8
1	51	29.8
2	35	20.5
3	33	18.1
4	6	3.5
5	16	9.4
6	5	2.9
Total	171	100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생의 Zener-Schnuelle 지수의 평균 역시 남학생의 평균이 1.79, 여학생의 평균이 2.36으로, 남학생의 평균이 2.97, 여학생의 평균이 3.39인 미국 대학생들(Holland, 1985, p.79)에 비해 낮았다.

일치도 지수의 남녀 차이를 보면, 여학생들의 일치도가 남학생들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를 따라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Holland 이론의 주요개념과 학과만족도의 관계

지금까지 분석한 Holland 주요개념들인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와 학과만족도의 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Holland 주요개념과 학과만족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변별도가 학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23$)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일치도가 학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32$)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는 변별도와 일치도가 모두 학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7. Holland 이론의 주요개념과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

	학과만족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일관도	.11	.03	.05
변별도	.23*	.21	.21*
일치도	.19	.32*	.22*

* $p < .05$

논 의

지난 10년간 진로발달 전문가 및 직업심리학자들은 진로관련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고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Leong & Hartung, 2000). Holland 이론 및 자기탐색검사의 경우 앞에서 제시했듯이,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문화간 타당성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 진로탐색검사 결과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적 흥미가 미국 대학생들의 직업적 흥미와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Holland 이론 및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적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진로 발달 및 문제를 이해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6가지 Holland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가지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남녀 성별 분포 차이도 미국 대학생들의 남녀 분포와 유사하다. 또한 탐구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대학생 집단에서 탐구형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이전 연구를 지지한다(Holland et al., 1997).

둘째, 일관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16%의 학생들이 일관도가 낮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관도가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진로미성숙 또는 흥미의 미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문화적 차이로 Holland 6가지 유형의 순서가 다를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Hansen(1994)은 아시아인들에게는 Holland 6가지 유형의 순서가 RIASEC이 아닐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서민희(2001)의 연구에서

도 역시 한국 학생들의 Holland 6가지 유형의 순서가 RIASEC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셋째, 연구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낮은 변별도와 낮은 일치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변별도 분석 결과에서는 변별도(differentiation)와 평평도(flatness) 지수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Holland(1997)은 변별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변별이 잘 된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보다 예측성이 높다. 즉, 이들은 보다 안정성인 진로선택을 하게 되고,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흥미 특성을 드러낸다. 일관되게 잘 정의된 프로파일은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진로 포부에서도 변화를 잘 보이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덜 겪는다”(p. 6-7). 또한 프로파일의 변별도는 발달과정을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낮은 변별도는 진로발달 지체의 가능성 또는 다른 발달 단계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진로 및 적성탐색 결과 지침에서도 소개되어 있듯이 변별도가 낮은 프로파일을 보이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Holland 코드를 잠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야 하고, 여러 흥미 영역에 대한 탐색과 체험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내담자에게 일률적으로 Holland 검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적절한 선별과정을 거쳐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자발적으로 대학 상담실을 찾아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신청한 학생들로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Holland 검사 활용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넷째, 내담자의 자기탐색검사 코드와 직업의 Holland 코드를 일치시키는 진로의사결정 전략은 일치도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일치도 지수(Zener-Schnulle index)의 평균이 2.03으로 낮게 나타났고, 일치도 지수 3점이 넘는 학생의 비율이 34%에 지나지 않았다. 즉, 66%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학과에 다니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거나, 이로 인해 스스로 진로관련 서비스를 신청했을 수 있다. 실제 어느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도, 전체 학생의 35.6%만이 학과선택을 선택할 때 자신의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서울대학교, 2000). 대학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만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나 대학 및 학과의 사회적 지위 등에 더 비중을 두는 학생들도 많다(황매향·김계현, 2003).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도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할 때 대학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학생들의 낮은 전공일치도는 대학 및 학과 선택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치도는 진로안정성, 만족도, 적응도, 진로성숙도의 좋은 예측치로 밝혀져 있다(Brown & Brooks, 1996). 따라서 학생들의 낮은 전공 일치도는 현재 진로에서의 불안정성과 현재 진로에 대한 불만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진로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생 진로상담에서는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진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공 선택 과정, 전공 불일치에 대한 인식, 앞으로 미칠 영향,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보다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진로장벽) 등을 다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Holland의 주요개념과 학과만족도의 결과에서는 변별도와 일치도가 학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변별도의

경우 만족도와의 상관보다는 진로안정성과의 정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더 많다(Holland, 1997). 자신의 흥미에 대해 분명하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진로영역 변경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안정성을 만족도가 매개할 가능성이 있고, 본 연구결과 얻어진 만족도와의 정적 상관 역시 매개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공일치도와 학과만족도의 정적 상관은 다른 다문화간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예, Camp & Chartrand, 1992; Holland, 1997; Leong & Austin, 1998; Tang, Fouad, & Smith, 1999; Tranberg, Slane, & Ekeberg, 1993). 그리고 상관의 정도도 상관계수 .2-.3 범위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Holland 코드의 일치도를 진로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침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의 정도가 .2-.3 범위라는 것은 흥미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변인들이 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Holland(1997)에 의하면,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가운데 일치도보다 더 큰 상관을 갖는 변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Holland 이론을 바탕으로 한 Holland 적성 및 진로탐색검사(안창규, 1996b)는 변별도와 일치도를 주의해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자발적으로 진로관련 심리검사를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관도, 변별도, 일치도의 수준의 의미를 미국의 80년대말 대

학생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준과 비교하였으므로 그 해석에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상담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Holland 이론 및 검사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가 진로상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서민희 (2001). 한국고등학생들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간 타당도 평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창규 (1996a). 진로탐색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169-200.
- 안창규 (1996b).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가이던스.
- 이체희 (2001). 직업선호도검사 타당화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사용자가이드. 서울: 저자.
- 황태향·김계현 (2003). 대학입시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타협유형. 상담학 연구, 4(1), 19-36.
- Blustein, D. L. & Ellis, M. V. (2000). The cultural context of career assess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4), 379-390.
- Brown, D. & Brooks, L. (1996). Introduction to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 Origins, evolution, and current effort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Camp, C. C. & Chartrand, J. M. (1992). A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interest congruence ind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162-182.
- Farh, J., Leong, F. T. L., & Law, K. S. (1998). Cross-cultural validity of Holland's Model in Hong Ko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425-440.
- Fouad, N. A. & Dancer, L. S. (1992). Cross-cultural structure of interests: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29-143.
- Hansen, J. C. (1987). Cross-cultural research on vocational interes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 163-193.
- Haverkamp, B. E., Collins, R. C., & Hansen, J. C. (1994). Structure of interests of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56-264.
- Holland, J. L. (1977).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 Holland, J. L. (1979).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elf-Directed Search*.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 Holland, J. L. (1985). *The Self-Directed Search: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1987). *1987 Manual supplement for the Self-Directed Search*.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Powel, A. B., & Fitzshe, B. A. (1994). *Self-Directed Search: Professional user's*

- guides.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attimore, R. R. & Borgen, F. H. (1999). Validity of the 1994 Strong Interest Inventory with racial and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85-195.
- Leong, F. T. L., Austin, J. T., Sekaran, U., & Komarraju, M. (1998). An evaluation of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Holland's theory: Career choices by Workers in Ind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441-455.
- Leong, F. T. L. & Hartung, P. J. (2000). Cross-cultural career assessment: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4), 391-401.
- Leong, F. T. L. & Serafica, F. C. (1995). Career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s: A research area in need of a good theory. In F. T. L. Leong (Ed.),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pp. 67-10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usateri, M. R. (1995). The meaning of low flat Holland code profiles: Identity, self-esteem, sex role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Ryan, J. M., Tracey, T. J. G., & Rounds, J. (1996). Generalizability of Holland's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across ethnicit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330-337.
- Savickas, M. L. & Spokane, A. R. (Eds.) (1999). *Vocational interests: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alo Alto: Davies-Black.
-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42-157.
- Tranberg, M., Slane, S., & Ekeberg, E.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congruence and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253-264.
- Weinrach, S. G. & Srebalus, D. J. (1990). Holland's Theory of careers. In D. Brown & L. Brook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37-67). San Francisco: Jossey-Bass.
- Yu, J. & Alvi, S. A. (1996). A study of Holland's typology in China.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245-252.

원 고 접 수 일 : 2004.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19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An Evaluation of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Holland's Theory: Career Choices by Korean Undergraduates

Mae-Hyang Hw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areer choices could be a direct reflection of their career interests and we need to ga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ests of our clients in career counseling. Holland Self-Directed Search is one of worldwide used inventories to assess the clients' interests. In Korea, Korean Self-Directed Search (KSDS) was developed several years ago and has been used in different counseling centers of universities in Korea since the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a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use of KSDS in career counse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ho have career concerns can be well understood by the analysis of the their KSDS results. And that information will lead us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use of KSDS.

Key Words : career choice, career interest, Holland code, Holland SDS, consistency, differentiation, congruence